

韓國工業의 成長率分析

黃 炳 峻

目	次
I 國民經濟의 成長과 構造變化	II 工業成長推移의 分析
1. 經濟成長의 趨勢와 그 吟味	1. 解放前 工業成長率의 算出
2. 産業構造近代化의 內容	2. 業種別·部門別 工業成長의 檢討
3. 産業構造改編에 관한 問題	3. 1910年代以後의 工業成長率比較

I 國民經濟의 成長과 構造變化

1. 經濟成長의 趨勢와 그 吟味

解放後 오늘날까지 20年이라는 歲月이 經過하고 있다. 그 간에 우리의 國民經濟는 大略 2倍로 成長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正確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國民所得推計에 있어서 GNP 成長指數는 1948年 및 49年을 基準(=100)으로 하여 1964年에 193.2를 가리키고 있다. 즉, 이것은 約 93%의 成長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은 반드시 定安된 「템포」로써 成長이 繼續 上昇하는 正常的인 樣相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解放後 이 나라 經濟가 걸어온 苦難의 발자취를 集約하듯이 심한 起伏을 그리는 「지그재그」한 過程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解放直後의 經濟的 萎縮에 加之하여 갈피를 못잡는 政治的, 社會的 混亂이 있었고 이어서 6·25 動亂, 그리고 두 차례의 革命을 겪었다. 日帝가 남긴 植民地政策의 毒素을 除去하고 經濟的 自立을 確立하기 위한 基礎를 마련하기도 전에 不時에 밀어닥친 그와 같은 混亂과 戰禍를 생각할 때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이 결코 平坦할 수 없었다는 것은 首肯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그 經濟成長에 있어서 美國을 中心으로 한 經濟援助가 절실히 要請될 理由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韓國經濟의 安定과 成長은 外援에 힘입은 바 컸고, 또한 앞으로 繼續하여 海外借款, 對日請求權, 經濟協力資金 등을 導入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韓國經濟의 工業化를 達成하는 課題는 그렇게 容易한 일로 展望되지는 않는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이것은 여기에서 解明되어야 할 重要한 問題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問題를 眞正하게 解明하자면 우선 今일에 이르기까지의 韓國工業의 成長과 發展過程을 綿密히 分析·考察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 解放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國民經濟의 成長過程을 보기 위하여 第1表를 提示한다. 이 表는 그 다음의 第2表와 第3表에 依據하여 總括 作成된 것이다. 그런데 第2表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從來의 國民所得推計方法에 따라 1955年 不變價格으로서 作成되었고, 또 第3表는 새로운 國民所得推計方法에 立脚한 1960年 不變價格으로 되어 있다. (1)

<第1表>

産業別 經濟成長率의 推移

(不變價格)

單位 : %

年 度	GNP 指數 (1948·49年 平均 =100)	成 長 率			
		全 産 業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1948	95.4	—	—	—	—
1949	104.6	9.7	4.5	33.9	10.9
1950	88.8	-15.1	-10.5	-34.7	-15.6
1951	83.4	-6.1	-15.3	-16.1	8.4
1952	90.0	8.0	-0.6	43.7	16.6
1953	113.2	25.7	29.5	60.3	15.4
1954	120.0	6.0	7.5	16.7	2.3
1955	127.7	6.3	2.5	17.9	6.2
1956	123.9	1.3	-5.8	9.9	4.1
1957	138.6	7.2	8.2	16.0	3.6
1958	147.0	6.1	7.9	6.6	4.6
1959	153.8	4.6	-0.5	10.6	6.2
1960	156.7	1.8	0.1	6.3	1.3
1961	164.1	4.8	12.7	2.9	0.2
1962	169.9	3.5	-8.5	14.5	8.2
1963	181.5	6.8	2.0	14.1	6.7
1964	193.2	6.9	12.4	5.9	4.0
平 均		5.5	3.3	14.9	5.9

註 : (1) 1963年 및 1964年은 筆者作成

(2) 1952年 1次産業成長率 6.9(前記『調査月報』參照)는 原本(同『調査月報』4294年 12月號)의 -0.6으로 表示하였음

(3) 1948~52年의 成長率은 1955年不變價格 GNP의 時系列推計에 依한 것임

資料 : 韓國銀行『調査月報』, 1964年 12月號

(1) 우리나라 國民所得推計가 시작된 것은 1953年 부터이므로 그 以前의 年度에 대한 資料는 公式의 으로 發表된 것이 없지만, 1950年~60年의 10個年間に 있어서 世界各國의 經濟動向을 比較·檢討하기 위하여 國際聯合에서 韓國의 國民所得을 1948年까지 週及, 推計하여 提出해 줄 것을 要請하여 왔으므로 韓國銀行에서는 1953年 以後의 GNP를 基礎資料로 하여 1948~52年의 過去에 없던 GNP時系列을 延長, 推計하였는데 그 結果와 함께 1948~60年의 韓國經濟의 成長推移를 表示한 것이 第2表이다. 한편 韓國銀行에서는 從來와는 달리 國民所得의 推計方法을 改編하여 基準年度를 1960年으로 옮기고 2次産業에는 電氣·「개스」業까지를 包含시키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推計方法에 의하여 作成된 것이 第3表이다.

<第2表>

産業別 國民總生産額の推移

(1955年度 不變價格)

單位：10億圓

年 度	國 民 總 生 産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基 準 年 度 (1948.49年平均)	76.76	—	100.0	38.96	—	100.0	7.63	—	100.0	30.17	—	100.0
1948	73.21	—	95.4	38.08	—	97.7	6.52	—	85.5	28.61	—	94.8
1949	80.29	9.7	104.6	39.83	4.5	102.2	8.73	33.9	114.4	31.73	10.9	105.2
1950	68.14	-15.1	88.8	35.66	-10.5	91.5	5.70	-34.7	74.7	26.78	-15.6	88.8
1951	64.00	-6.1	83.4	30.19	-15.3	77.5	4.78	-16.1	62.6	29.03	8.4	96.2
1952	69.11	8.0	90.0	28.39	-0.6	72.9	6.87	43.7	90.0	33.85	16.6	112.2
1953	86.85	25.7	113.2	36.77	29.5	94.4	11.01	60.3	144.3	39.07	15.4	129.5
1954	91.35	5.2	119.0	39.03	6.1	100.2	12.77	16.0	167.4	39.55	1.2	131.1
1955	95.02	4.0	123.8	40.20	3.0	103.2	14.44	13.1	189.3	40.38	2.2	133.8
1956	95.28	0.3	124.1	37.84	-5.9	97.1	16.20	12.1	212.3	41.24	2.1	136.7
1957	103.53	8.7	134.9	41.15	8.7	105.6	18.96	17.0	248.5	43.42	5.3	143.9
1958	110.70	7.0	144.2	44.21	7.4	113.5	20.64	8.9	270.5	45.85	5.6	152.0
1959	116.48	5.2	151.8	44.84	1.4	115.1	23.38	13.3	306.4	48.26	5.3	160.0
1960	118.89	2.1	154.9	45.23	0.9	116.1	24.24	3.7	317.7	49.42	2.4	163.8
平 均		4.6			2.4			14.3			4.8	

註：(1) 1948—52年은 産業別 國民總生産額 時系列推計되었음
 資料：韓國銀行『調査月報』, 4294年 12月號

<第3表>

産業別 國民總生産額の推移

(1960年 不變價格)

單位：10億圓

年 度	國 民 總 生 産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附 加 價 値	成 長 率	指 數
1953	158.13	—	100.0	59.57	—	100.0	19.54	—	100.0	79.02	—	100.0
1954	167.66	6.0	106.0	64.05	7.5	107.5	22.78	16.7	116.7	80.83	2.3	102.3
1955	178.30	6.3	112.8	65.65	2.5	110.2	26.83	17.9	137.3	85.82	6.2	108.6
1956	180.67	1.3	114.3	61.86	-5.8	103.8	29.52	9.9	151.0	89.29	4.1	112.9
1957	193.60	7.2	122.4	66.91	8.2	112.3	34.21	16.0	175.0	92.48	3.6	117.0
1958	205.41	6.1	129.9	72.22	7.9	121.2	36.52	6.6	186.8	96.67	4.6	122.3
1959	214.90	4.6	135.9	71.87	-0.5	120.6	40.40	10.6	206.7	102.63	6.2	129.8
1960	218.78	1.8	138.4	71.92	0.1	120.7	42.97	6.3	219.9	103.89	1.3	131.4
1961	229.30	4.8	145.0	81.04	12.7	136.0	44.19	2.9	226.1	104.07	0.2	131.7
1962	237.37	3.5	150.1	74.17	-8.5	124.5	50.58	14.5	258.8	112.62	8.2	142.5
1963	253.48	6.8	160.3	75.64	2.0	126.9	57.69	14.1	295.2	120.15	6.7	152.0
1964	271.02	6.9	170.7	85.03	12.4	142.6	60.71	5.9	310.6	125.28	4.0	158.5
平 均		5.0			3.5			11.0			4.3	

註：(1) 1964年은 暫定推計
 (2) 2次産業에는 電氣·「개스」業을 포함함
 資料：韓國銀行『調査月報』, 1964年 12月號 및 1965年 1月號

여기서 1948년부터 1964년까지의 過去 16年間に 걸쳐 韓國經濟의 總括的인 成長推移를 보면 대체로 1952年을 境界로 하여 對蹠的인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1952년까지는 (실제로 解放直後도 包含하여) 經濟成長이 크게 萎縮 내지 停滯되었다. 이는 앞에서도 指摘하였듯이 解放後의 經濟的 政治的 및 社會的 混亂과 6·25 動亂의 戰禍에 緣由한다고 볼 것이다. 反面에 1953年 7月에 韓國戰線에 休戰이 成立되면서 부터는 年度에 따라서 起伏은 있지만 經濟成長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次 產業의 顯著한 成長率이 注目된다. 이는 주로 休戰과 더불어 本格的으로 시작된 外援을 뒷받침으로 하여 安定된 基調위에서 國民經濟의 復舊 및 再建이 急進進展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具體的으로 指摘하여 1948년부터 1964년까지의 全產業의 年平均 成長率이 5.5%의 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經濟成長이 萎縮된 解放直後부터 1947년까지의 國民所得推計가 包含되지 않았다는 點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역시 休戰後의 經濟成長率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그 根據로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年平均成長率에 있어서 1次 產業이 3.3%, 3次 產業이 5.9%인데 대하여 2次 產業은 14.9%의 높은 比率을 表示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韓國經濟의 近代化가 促進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概說하여 國民經濟의 近代化를 指向하면서 經濟成長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GNP 成長指數는 1948年 및 49年의 平均을 基準(=100.0)으로 하였을 때 1964年에 와서는 193.2에 달함으로써 그동안 國民經濟는 約 93%의 成長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經濟規模는 解放直後보다 生産力을 中心으로 볼 때 約 2倍로 擴大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全產業의 年平均成長率은 5.5%로 되어 있는데 이는 海外諸國의 例와 比較하여 보아도 그렇게 低水準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 第4表에서 보듯이 美國, 英國,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主要先進國이 모두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보다 낮다. 물론 一般的으로 經濟發展이 어느 段階에 到達한 先進國經濟는 發展途上에 있는 後進國經濟보다 成長率이 低調한 것이 通常의 現象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經濟成長率을 ECAFE 地域의 諸國家와 比較하여 보면 韓國은 日本(9.4%), 臺灣(7.1%), 「필리핀」(5.4%)의 다음 順位이지만, 그러나 泰國(4.6%), 「버마」(4.2%), 「말레이」(4.1%) 등의 東南亞後進諸國보다 높고 특히 後進國經濟開發計劃으로 이름난 印度의 그것(3.5%)보다 훨씬 上廻하고 있는 것이 注視된다. 이와같은 計數는 요컨대 韓國經濟가 오늘날까지 상당히 成長하면서 國民經濟規模가 擴大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지금까지 韓國經濟는 成長하면서 그 規模가 擴大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

< 第 4 表 >

主要國家의 經濟成長率 比較

單位 : %

國 名	GNP(1954-62)의 年平均成長率	國 名	GNP(1954-62)의 年平均成長率
美 國	2.8	비 마	4.2
英 國	2.5	말 레 이	4.1
西 獨	7.4	타 이	4.6
프 랑 스	4.9	파 키 스 탄	2.5
伊 太 利	6.0	인 도 네 시 아	3.2
덴 마 크	4.0	필 리 핀	5.4
오 스 트 리 아	6.5	홍 콩	7.1
스 위 스	4.4	이 스 라 엘	8.9
카 나 다	3.4	오 스 트 레 일 디 아	3.8
日 本	9.4	칠 리	2.2
印 度	3.5	韓 國	5.0

註 : 韓國은 1954-64의 平均인
資料 : 日本銀行統計局刊『國際比較統計』, 昭和 39 年

에 內包된 몇가지 重要한 問題가 있다는 것을 看過하여서 아니될 것이다. 우선 그 하나는 國民經濟의 實質的인 成長率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6 年間의 年平均成長率 이 5.5%라고 하지만 人口成長率이 1956 년에는 3.7%였고 1957 年以後부터는 年平均 2.9 %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²⁾ 經濟의 實質的인 成長率은 人口成長率을 減하여야 하므로 극히 限定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國內에 龍大한 失業人口가 있으므로 그 와 같은 實質成長率로서는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이나 社會正義를 實現하기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經濟成長의 與件이나 土臺가 安定되어 있지 않다는 問題가 있다. 이미 앞에서 過去 經濟成長趨勢가 심한 起伏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하자면 1948 年부터 1964 年間に 있어서 年平均 最高 25.7%에서 最低 -15.1%의 廣大한 幅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 原因이 自然的 與件에 있든 혹은 政治·社會的 與件에 있든 간에 經濟成長이 安定된 土臺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뿐더러 예컨대 過去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經濟成長도 海外財源에 상당히 依存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의 主體的인 力量만으로서로는 規制될 수 없는 것이므로 經濟成長의 土臺가 安定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이룩하는 經濟成長이 果然 勞動生產性的 提高를 隨伴하고 있느냐 하는 質的인 問題도 吟味되어야 할 것이다. 國民經濟를 近代化하면서 經濟成長을 促求하자면 반

(2) 經濟企劃院刊, 『經濟白書』, 1964 年版. p. 258.

드시 勞動手段의 發達이나 産業技術의 向上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편 國際收支의 改善이나 國民所得水準의 上昇과도 깊이 關聯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産業施設 및 技術의 發達이 뒤떨어져 있는 實情이다. 물론 國民經濟의 成長을 위하여 過剩狀態에 있는 勞動力을 投下・活用하는 重要性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지만 基本的으로는 生産性的 提高가 經濟成長을 밑받침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실제로 韓國과 같이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한 國家가 急速한 經濟成長을 成就한 過程을 살펴 보면 生産에 直結되는 産業技術의 發達・導入이 決定的인 契機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가 達成한 5.5%의 經濟成長率은 이러한 觀點에서 檢討되어야 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以上에서 解放後 오늘날까지의 韓國經濟의 成長趨勢를 상세히 考察하는 동시에 그 國際比較를 하고 또한 그 속에 內包되는 몇가지 問題를 吟味하였다. 그런데 國民經濟의 成長은 그 構造變化面에서 아울러 檢討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 産業別成長率의 檢討를 통하여 産業構造의 變化에 關하여 論考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2. 産業構造 近代化의 內容

1964年까지의 16年間に 있어서 達成된 5.5%의 韓國經濟의 年平均成長率은 産業別로 보면 1次産業이 3.3%, 2次産業이 14.9%, 그리고 3次産業이 5.9%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2次産業의 成長速度가 실로 他産業의 追從을 不許하는 刮目할 比率인데 이는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그만큼 近代化 또는 工業化되었음을 말 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2次産業을 構成하고 있는 鑛業・製造業・建設業・電氣業등이 모두 國民經濟의 發達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基本産業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勞動生産性도 높고 輸入代替效果도 크므로 그 育成을 위한 國家의 積極的인 政策的 配慮가 있었고 또 이의 實踐을 可能케한 外援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 간의 産業構造의 改編도 2次産業 中心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全體産業에 대한 各産業의 寄與率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1次産業의 그와같은 寄與率은 대단히 낮다. 원래 1次産業은 自然의 影響과 支配를 많이 받는다고 하겠는데 米作 偏重(monoculture)의 農業을 中心으로 하는 우리나라 1次産業은 米穀生産의 凶豐이 그 成長率을 주로 左右하게 된다. (凶年인 1951年, 52年, 56年, 62年の 경우가 그 例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1次産業, 특히 農業의 後進性을 말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總耕地面積 가운데 水利不完全畝이 約 55%를 占하고 있으므로 米穀生産은 降雨量이 적거나 風

水害가 심한 해(年)에는凶作을 꺾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米穀生産의 凶作으로 말미암아 1次産業은 그 成長率이 低水準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結果 農業은 全産業에 대하여 約 40%의 比重을 占하고 있음에에도 不拘하고 1次産業의 全體經濟成長에 대한 寄與率은 겨우 19%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過去의 經濟成長은 주로 2次 및 3次産業의 成長에 依存하여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10年間(1953~63年)에 있어서 前述한바 1次産業의 成長率이 全體經濟의 成長率에 대한 寄與率이 19%에 不過한데 대하여 2次産業은 39%, 3次産業은 42%나 되었다는 사실로서 充分히 認證된다. 한편 위의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3次産業의 成長速度가 比較的 緩慢하고 安定的인데 反하여 2次産業은 3次産業 成長速度의 約 3倍에 達하는 急速한 成長을 하여왔음을 想起하면 그동안 産業構造는 2次産業中心으로 相當한 改編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相異한 産業別 成長率과 寄與率이 持續되는 가운데 그동안 産業構造는 漸次로 變動을 招來하였다. 다음의 第5表를 보면 지난 16年間(1948~64年)에 있어서 3次産業은 그 成長率이 比較的 安定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GNP 構成比도 比較的 安定的이었고 第1次 5個年經濟計劃의 目標年度인 1966年에 가서도 42.5%로 策定되어 그 比重이 繼續 40% 이상을 維持하고 있으므로 큰 變化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2次産業과 1次産業의 比重은 많은 變動을 이루어 全體 産業構造도 相當한 改編이 實現되었다. 즉 2次産業의 GNP 構成比는 1948年の 8.6%에서 1964년에는 22.4%로 約 3倍의 飛躍的인 上昇을 보였으며 反面에 1次産業은 同構成比가 46.3%에서 31.4%로 크게 下落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前述한 바와 같이 2次産業 中心으로 相當한 改編 내지 高度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1948年 當時에 있어서는 1次, 2次, 3次産業의 比重이 46:9:45이던 것이 1964년에 와서는 32:22:46으로 改善된 것이 注視된다.

그런데 1次産業의 比重이 이와같이 大幅 減少한 것은 1次産業自體의 成長이 그처럼 減退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 오히려 2次 및 3次産業의 成長率이 1次産業의 成長率을 훨씬 凌駕함으로써 相對적으로 그 比重이 減少한데 基因한다. 한편 2次産業의 比重은 우리나라 工業의 衰退期라고 할 수 있는 解放直後부터 全工業生産施設의 約 42%를 破壞하였던 6·25事變에 이르기까지는 극히 低位에 놓여 있었고 또 도리어 減少趨勢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3年 以後 本格化된 海外援助의 導入, 近代産業의 積極的인 復舊·建設, 國民生活의 安定에 따르는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增大, 生産技術의 發見, 또는 最近年에 있어서의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 등으로 因하여 그 比重이 急上昇하였다. 가

<第 5 表>

産業別 GNP 의 構成比

(産業構造의 推移)

單位 : %

年 度	全 産 業	1 次 産 業	2 次 産 業	3 次 産 業
1948	100.0	46.3	8.6	45.1
1949	100.0	44.2	10.2	45.6
1950	100.0	46.6	7.9	45.5
1951	100.0	42.1	7.1	50.8
1952	100.0	36.6	9.6	53.8
1953	100.0	37.7	12.3	50.0
1954	100.0	38.2	13.5	48.3
1955	100.0	36.8	15.0	48.2
1956	100.0	34.2	16.2	49.6
1957	100.0	34.6	17.6	47.8
1958	100.0	35.2	17.5	47.3
1959	100.0	33.4	18.7	47.9
1960	100.0	32.9	19.4	47.7
1961	100.0	35.3	19.2	45.5
1962	100.0	31.3	21.1	47.6
1963	100.0	29.8	22.7	47.5
1964	100.0	31.4	22.4	46.2
平 均	100.0	(36.8)	(15.3)	(47.9)
1966	100.0	31.7	25.8	42.5

註 : 1948—52 年 構成比系列은 55 年 不變價格系列인데 1953 年의 新舊系列差로써 調整된 것임.
 資料 : 韓國銀行 『調査月報』, 1964 年, 12 月號

령 2 次産業의 成長率이 1950 年에는 最低 -34.7%이던 것이 1953 年에는 最高 60.3%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這般의 事情을 雄辯으로 말해 주는 計數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 次産業의 全體의 成長은 年平均 14.9%라는 높은 水準을 維持하였고 따라서 그 構成比도 1948 年의 8.6%에서 1964 年에는 22.4%로 急增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3 次産業은 이 部門에 대한 各種消費性 援助物資의 導入, 過剩人口의 集中, 또는 「인플레이션」下에서의 長期懷妊投資의 回避現象 등으로 말미암아 繼續하여 「스테디」한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특히 留意할 것은 1952 年에 그 比率이 53.8로서 가장 높고 51 年과 53 年 역시 50% 以上の 高比率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要言하여 6·25 動亂中의 特殊現象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戰禍로 인한 生産施設의 破壞와 避難民의 生活難이 救護物資 내지 消費財爲主의 援助

에 의하여 이 3次産業部門에서 보다 많이 解決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2次産業을 構成하고 있는 各産業別成長을 보면 다음의 第6表과 같이 지난 1953년부터 1964년까지의 11年間に 있어서 鑛業이 年平均 17.5%로서 그동안 5.5倍의 가장 刮目할만한 成長을 하였고 다음이 製造業으로서 이 期間에 3倍 以上으로 그 規模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次産業이 構造面을 살펴본다면 1953年이나 1964年에 와서는 큰 變動이 없고 다만 第6 및 7表에서 보듯이 建設業, 電氣, 水道 및 衛生事業 등의 其他의 2次産業의 比重減少가 鑛業의 比重增加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製造業의 比重

<第6表>

2次産業部門內 成長推移

(1960年 不變價格)

單位: 10 億圓

年度	鑛業			製造業			其他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	(1953=100)		%	(1953=100)		%	(1953=100)
1953	1.49	—	100.0	12.57	—	100.0	5.48	—	100.0
1954	1.60	7.4	107.4	14.80	17.7	117.7	6.38	16.5	116.5
1955	2.15	34.4	144.3	18.10	22.3	144.0	6.58	0.3	120.1
1956	2.11	-1.8	141.6	20.83	15.0	165.7	6.58	0.0	120.1
1957	3.02	43.1	202.6	22.71	9.0	180.7	8.48	28.9	154.8
1958	3.32	9.9	222.8	24.53	8.0	195.1	8.67	2.2	158.2
1959	4.04	21.7	271.1	26.37	7.5	209.8	9.99	15.2	182.3
1960	4.94	22.3	331.5	27.81	5.5	221.2	10.22	2.3	186.3
1961	4.92	-0.4	330.2	28.39	2.1	225.9	10.88	6.4	198.5
1962	6.59	33.9	442.3	31.82	12.1	253.1	12.17	11.9	222.8
1963	7.10	7.9	476.5	36.77	15.5	292.5	13.82	13.5	252.2
1964	8.12	14.3	544.9	38.71	5.3	307.9	14.25	3.1	260.0
平均	—	17.5	—	—	10.9	—	—	7.8	—

註: (1) 1964年을 暫定推計

(2) 鑛業은 採石業을 包含함.

(3) 其他는 建設業과 電氣, 水道 및 衛生事業을 包含함.

資料: 韓國銀行『調査月報』, 1964年 12月號에서 作成

이 것처럼 安定되어 있음은 그 成長率이 低調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鑛業의 成長率이 이 보다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그 比重의 增加가 緩慢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製造業의 全體 GNP 構成比의 動向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製造業의 比重이 1953년에는 8.0%에 不過하던 것이 그 후 10餘年間 繼續 上昇趨勢를 보여 1964년에는 14.3%에 達하였다. 말하자면 同期間에 우리나라 經濟는 量的으로는 倍增의 工業化가 現實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點에 관해서는 第7表를 參照하면서 그 內容을 檢討하면 理解할 수 있다.

〈第7表〉 2次産業構造의 推移(%)

年 度	2次産業	鑛 業	製 造 業	其 他
1953	100.0	7.6	64.3 (8.0)	28.1
1954	100.0	7.0	64.9 (8.8)	28.1
1955	100.0	8.0	67.5(10.2)	24.5
1956	100.0	7.1	70.6(11.5)	22.3
1957	100.0	8.8	66.4(11.7)	24.8
1958	100.0	9.1	67.2(11.9)	23.7
1959	100.0	10.0	65.3(12.3)	24.7
1960	100.0	11.5	64.7(12.7)	23.8
1961	100.0	11.1	64.2(12.4)	24.7
1962	100.0	13.0	62.9(13.4)	24.1
1963	100.0	12.3	63.7(14.5)	24.0
1964	100.0	13.4	63.8(14.3)	22.8
1966	100.0	10.8	63.2(16.3)	26.0

註：(1) 括弧內는 對GNP構成比임.
 (2)1964年은 暫定推計
 (3) 1966年은 第1次5個年 經濟計劃에 의한 計劃值임.
 資料：第6表에서 作成

그런데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急速한 鑛業 및 製造業의 成長에 따르는 産業構造의 變化에 관하여 留意하여야 할 點이 있다. 그것은 우선 鑛業成長에 있어서 鑛業總生産額의 約 72%(1963年)를 차지하는 石炭鑛業이 金屬鑛業과 非金屬鑛業에 比하여 훨씬 急速한 成長을 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産業構造의 變化에도 그것이 如實히 反映되고 있는 點이다. 실제로 發電用炭, 工業用炭 및 家庭用炭의 需要急增으로 因하여 石炭의 大幅의인 增産이 要請되었을 뿐만 아니라, 國家의 石炭開發政策도 集中的으로 이루어져, 例컨데 炭 座大單位化에 依한 增産과 같이 많은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製造業에 있어서(鑛業도 그렇지만) 그 構成比가 鑛業의 構成比增大에도 不拘하고 2次産業全體의 約 3分の 2線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經濟發展段階나 6·25事變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構成比의 維持를 뒷받침하는 成長率은 오늘날 많은 後進國의 例와 같이 工業化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또는 獨逸·日本의 경우처럼 戰爭의 被害를 많이 받은 國家가 經濟再建을 서두르는 過程에서 急上昇하는 것이므로 지난 10餘年間に 있어서의 우리나라 製造業의 構成比推移에 있어서도 그러한 事情을 想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韓國의 産業構造를 海外諸國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의 第8表에서 世界主要先進國의 産業構造를 보면 美國·英國·西獨 등은 모두 1次産業이 10%未滿이고 2次産業과 3次産業이 各各 40~60%의 比를 占하고 있으며 그 中에서 특히 製

産業만 하더라도 平均 40%로 되어 있다. 日本 및 「이탈리아」도 이와 類似한 先進國型的 産業構造를 具現하고 있음은 같은 年度(1960年)에 있어서 1次産業이 33%나 되는 反面 2次産業이 不過 19%, 그중에서도 특히 製造業은 13%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와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단지 3次産業만은 先進國과 비슷한 水準을 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韓國經濟가 갖는 非正常的 現象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클린 클라크」(C. Clark)의 所說⁽³⁾과는 반드시 一致되고 있지 않다. 이리하여 結局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보면 1次産業이 상당히 높은 比율을 차지하고 있고 2次産業은 아직도 대단히 低位에 있으며 3次産業이 異例적으로 肥大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역시 後進國의인 類型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同表에서 보다시피 泰國 「필리핀」 등의 東南亞諸國이 우리와 恰似한 構造를 示顯하고 있다.

<第 8 表>

主要國家의 産業構造

(1960年)

單位 : %

國 名	全 產 業	1 次 產 業	2次産業 (製造業)	3 次 產 業
美 國	100.0	4	38 (30)	58
英 國	100.0	4	48 (37)	48
西 獨	100.0	7	56 (45)	37
이 탈 리 아	100.0	17	45 (32)	38
日 本	100.0	15	47 (30)	38
泰 國	100.0	36	18 (14)	46
필 리 핀	100.0	34	24 (18)	42
韓 國	100.0	33	19 (13)	48
	100.0 ⁽¹⁾	31.4	22.4(14)	46.2
	100.0 ⁽²⁾	31.7	25.8	42.5

註 : (1) 1964年 暫定推計임.

(2) 66年(目標年度)은 第1次 5個年經濟計劃에 의한 計劃值임.

資料 : UN刊 『國民計定統計年報』, 1963年版

3. 産業構造改編에 관한 問題

위에서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變化와 그 內容에 관하여 檢討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의 産業構造改編의 方向과 關聯하여 若干의 問題를 提起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産業構造의 近代化라는 見地에서 韓國과 같은 後進國의 産業構造를 無理하게 先進國的인 産業構造로 轉換시키고자 하는데에 대한 批判的 反省이다. 「바우어」(P. T. Bauer) ·

(3)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st ed., 1940, 2nd ed., completely rewritten, 1951.

「에미」(B. S. Yamey) 등의 後進國 經濟學者도 말하였지만 最近에 一般적으로 立證된 바에 의하면 構造的 近代化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3次産業・2次産業・1次産業의 構造內容順位는 先進國에만 妥當하는 것이며 後進國으로는 1次産業・3次産業・2次産業의 順位가 不可避하고, 또 成長速度가 빠른 中進國에서는 2次産業・3次産業・1次産業의 順位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先・中・後進國에 따라서 特異한 産業構造的 類型을 가지는 데에는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無理하게 先進國의인 類型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果然 合理的인 改編方向인지 疑心되는 바 없지 않다. 가령 우리의 經濟的 現實에서 볼 때 오늘날 食糧의 自給自足이 무엇보다 앞서야할 政策的 目標이라고 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은 每年 約 4百萬石의 不足된 食糧을 外國으로부터 導入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農業을 中心으로 한 1次産業의 比重이 減少되는 것을 반드시 歡迎할 수는 없다. 오히려 食糧增産을 위하여 그 比率이 增加될 수 있다고 본다. 反面에 近代化의 觀點에서 工業을 비롯한 2次産業의 發達이 要請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內容이 化粧品・強壯劑・奢侈品 등의 消費財工業이라면 이는 明確히 不必要한 發達이라고 하겠다.

또 3次産業에 있어서는 韓國이 異例의인 높은 比重을 보이고 있는데 2次 및 1次産業에로의 確固한 轉換對策 없이 3次産業人口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3次産業의 比重이 그처럼 肥大하고 있는 理由는 위에서도 잠간 言及한 바와 같이 莫大한 外援物資가 流通하는 이 部門에 「인플레이션」下에서 長期投資를 回避하는 國內資本이 높은 利潤率을 追求하여 投入되었다는 點도 있지만, 동시에 重視해야 할 것은 이 部門이 1人當 資本裝備率이 낮으며 專門의 技術이 대체로 必要 없고 就業機會를 發見하기가 比較的 容易하므로 老대한 失業人口에 대한 當場의 包容能力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의 遊休勞動力이 3次産業部門으로 集中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3次産業의 社會政策的 意義를 等閑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의 部門에로의 轉換對策 없이 3次産業의 比率을 줄인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한 일이라고 하여서 過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産業構造改編의 長期的 方向은 2次産業을 中心으로한 構造的 近代化를 指向하여야 하겠지만, 當面한 課題로서는 역시 2次産業의 發達과 더불어 1次産業의 實質的인 擴大, 또는 3次産業의 어느 程度의 繼續的인 維持가 必要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비록 全體經濟成長에 대한 1次産業의 寄與率이 2次 및 3次産業의 折半에도 未達하는 19%에 지나지 않는다는가, 혹은 3次産業의 維持가 外援에 대한 依存度を 줄이지 못하는 根據가 된다고 하더라도 一朝一夕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처

럼 우리나라 産業構造에 있어서 1次産業이 상당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한편 2次産業보다 3次産業의 比重이 顯著하게 크다는 사실과 그 改善이 現實적으로 容易하지 않다는 展望들은 韓國經濟의 自主的 發展을 阻害함에 틀림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農業과 工業의 勞動生産性에 관하여 比較·檢討하고 이를 産業構造의 改竄과 關連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다음의 第9表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農業의 生産性은 工業이나 鑛業의 그것보다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1958년에 있어서 工業生産性은 農業보다 4.2倍, 1960년에 있어서 5.4倍, 1961년에 4.3倍, 그리고 1962년에 6.7배나 높은 것이다. 이를 平均하면 5.4倍의 높은 倍數이다. 한편 工業生産性은 1959년부터 62까지의 사이에 約 2.4倍로 上昇하였고 鑛業生産性은 그보다도 더 높아서 2.4倍로 增大하고 있는데 反하여 農業生産性은 거의 停滯狀態에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第9表〉 韓國의 農業 및 工業生産性의 推移와 比較 (經常價格) 單位: 千圓

年 度	農 業 (A)	鑛 業	工 業 (B)	$\frac{B}{A}$
1958	15.2	60.2	62.7	4.2
1960	14.9	101.6	81.0	5.4
1961	16.8	101.8	74.4	4.3
1962	16.7	143.4	111.1	6.7

資料: 韓國銀行, 『農家經濟綜合報告』, 農林部, 『農林統計年報』 및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韓國産業銀行, 『鑛工業「센서스」』 및 同 『標本調查報告』 등에 依據하여 作成.

또한 韓國의 農業 및 工業生産性을 各國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第10表와 같다. 즉, 農業에 比하여 工業生産性이 美國은 2.5倍, 日本은 2.9倍, 「필리핀」은 2.8倍인데 反하여 韓國은 4.3倍의 큰 格差를 보이고 있다. 이를 要約하여 말하자면 各國은 農業보다 工業이 2倍 내지 3배가 높은 程度이지만 우리나라는 4倍以上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第10表〉 各國의 農業 및 工業生産性의 比較

國 名	農 業 (A)	工 業 (B)	$\frac{B}{A}$
韓 國 (1961年)	17千圓	74千圓	4.3倍
美 國 (1950年)	2.4千弗	6.0千弗	2.5倍
日 本 (1960年)	117.2千圓	348.8千圓	2.9倍
필리핀 (1959年)	623페소	1,752페소	2.8倍

資料: 韓國銀行, 『農家經濟綜合報告』, 『1961年全國鑛業 및 製造業事業體標本調查報告』, 『國際統計要覽』 1962年版에 依據하여 作成.

이렇게 볼때 우리는 韓國의 工業生産性이 높다기 보다는 오히려 農業生産性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指摘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後進國一般이 그렇지만 韓國工業에 있어서도 그 成長과 發展을 위하여 先進國에서 이미 이룩한 施設・技術을 導入하며 蓄積된 資本을 利用하는 등의 有利한 條件도 있지만, 反面에는 先進國의 良質廉價한 製品의 浸透로해서 内外市場의 開拓이 어렵고 資本및 技術導入은 結局 先進國보다 相對的으로 高價로 되는 등의 不利한 條件이 적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近代工業은 資本集約的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資本蓄積의 貧困과 過剩人口의 存在는 工業의 近代化와 生産性의 向上을 크게 制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不利한 諸條件에 관하여 韓國工業은 現實的인 苦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農・工業生産性의 심한 格差는 역시 農業生産性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緣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農業은 半封建的인 生産樣式위에서 米作爲主의 營農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農業人口의 過多, 耕作面積의 狹小, 生産技術의 落後, 農產物價格의 低水準, 農業政策의 貧困, 農業關係統計의 不備等은 모두 한결같이 農業生産의 上昇을 制約하는 重要한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諸條件의 合理的인 克服과 改善에 의하여 그 生産性을 向上하는 것이 時急한 課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韓國의 學生中에는 低調한 우리나라 農業生産性의 持續은 農村經濟의 犠牲에 의한 工業化의 促進을 意味하는 것이고, 실제로 日帝下에서 그와 같은 收奪現象이 더욱 뚜렷하게 糾明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概說하여 우리나라 工業構造를 보면 中小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決定的으로 높고 또한 그와 같은 工業製品의 市場이 주로 地方農村이 된다는 點에 想到할때 長期的인 視點에서 農村의 犠牲에 立脚한 工業化의 方向은 보다 根本的인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農・工業의 生産性의 觀點에서 볼 때 앞으로의 産業構造의 改編은 先進國的인 産業構造에 대한 無批判的인 接近은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基本的으로 産業構造의 近代化가 追求되어야 하겠지만, 한편 우리의 經濟發展段階와 韓國經濟의 特質을 잘 勘察하여 現實的이며 自主的인 構造를 갖추는 것을 잊어서 아니 된다. 우리의 窮極的 目標은 언제나 經濟的 自立的 成就에 있는 것이다.

II 工業成長推移의 分析

1. 解放前 工業成長率의 算出

本章에서 이제 우리나라 工業成長의 推移를 分析함에 있어서 解放前과 解放後로 大別

하여 考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試譯된 일이 없는 解放前의 工業成長率을 여기에서 算出하여 보았다. 이는 解放後의 工業成長率과 比較함으로써 韓國工業의 成長과 發展過程을 보다 長期間에 걸쳐 充實히 理解, 究明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工業成長은 根本的으로 日帝가 물려준 이 나라의 畸型的인 工業構造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解放前의 우리나라의 急速한 工業成長은 日本資本의 超過利潤取得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戰時經濟가 빚어낸 侵略的 所產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하간에 解放前 工業成長率의 算出과 또 이를 利用하는 分析은 우리나라 工業에 관한 諸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뜻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의 解放前計數는 南·北韓을 합친 것임에 留意하여주기 바란다.

뒤돌아 보면 韓國工業은 日本資本主義가 우리나라에 侵入하여 상당히 굳은 基盤을 마련한 1920年代부터 比較的 높은 成長「템포」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1930年代에 가서 日本資本主義의 成熟과 侵略性에 따라 戰爭遂行을 위하여 戰時經濟體制에 들어서면서 부터 더한층 그 成長「템포」가 加速되었던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1920年代를 통하여 起伏은 있지만 韓國의 工業은 年平均 10.4%란 比較的 急速한 成長을 보였고 1930年代에 가서는 우리 工業發達史上 初有의 높은 年平均成長率인 13.5%를 示顯하였다. 이리하여 韓國工業의 年平均 實質成長率은 「로스토크」(W. W. Rostow)教授가 指摘하고 있는 바 跳躍段階(take-off stage)에 進入하고 있었다. 1870~1905年間の 日本의 工業成長率 12%를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⁴⁾ 지금 이와 같은 事實을 좀 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기 위하여 第11 表를 보면 工業生産額은 1920年을 不變價格으로 하여 1921년에는 265,962千圓이던 것이 1929년에는 482,311千圓, 다시 1939년에는 1,655,596千圓으로 增加하였고 그 結果 工業의 成長指數도 1921年을 基準(=100.0)으로 하였을 때 그로부터 20年後인 1939년에 가서는 622.4로 上昇함으로써 1920年代와 30年代를 通하여 韓國工業은 6倍以上의 成長을 實現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韓國工業의 急速한 成長은 첫째로 自力에 의한 正常的 成長趨勢라기 보다는 그 推進力의 實定的 主體가 侵略的 收奪性을 지닌 日本의 資本力이라는 點과 둘째로 韓國의 工業이 처음에는 아직 그 힘이 약한 日本의 資本主義를 成熟段階로 發達시키는데 寄與하였고 그 다음에는 成熟된 日本資本主義의 戰爭遂行을 위하여 利用되는 過程에서 必須的으로 나타난 結果라는 點등을 생각하면 表面的인 成長率이 높다는데 眩惑될 것이

(4) 「로스토크」(W. W. Rostow)教授는 日本經濟의 跳躍段階를 1878~1900年間으로 잡고 있는데 이 段階를 包括하고 있는 1870~1905年間に 있어서 日本工業의 年平均實質成長率은 約 12%였으며 1905~20年間은 9%, 그리고 1920~36年間에는 7%였다.

<第 11 表>

解放前 工業生産의 增加와 成長率推移

年 度	生 産 額 (經 常 價 格)	生 産 額 ⁽¹⁾ (1920年不變價格)	成 長 率	指 數
	千圓	千圓	%	%
1921	200,536	265,962	30.1	100.0
1922	223,343	297,776	11.9	112.0
1923	233,629	314,440	5.5	118.1
1924	250,762	311,119	-1.1	116.9
1925	269,364	317,272	1.9	119.2
1926	299,968	391,092	23.5	146.9
1927	302,946	421,930	7.8	158.8
1928	318,714	455,705	8.0	171.4
1929	327,007	482,311	5.8	181.6
1920年代平均			10.4	
1930	280,964	476,210	-1.1	178.9
1931	252,925	532,463	11.8	200.0
1932	310,837	658,538	23.6	247.7
1933	367,236	700,831	6.4	263.6
1934	438,402	825,615	17.8	310.6
1935	607,477	1,029,622	24.7	387.2
1936	730,807	1,167,412	13.3	438.7
1937	959,308	1,423,344	21.9	535.1
1938	1,140,118	1,461,076	2.7	549.2
1939	1,498,277	1,655,596	13.4	622.4
1930年代平均			13.5	
1940	1,646,606	1,601,325	-3.2	602.0
1943	2,050,000	1,694,444	10.0	633.2

註：(1) 朝鮮銀行, 『統計月報』, 大正9年~昭和18年(1910年7月基準)의 京城物價指數(年平均値)로 修正.

(2) 1943年の 成長率은 1942年の 經常價格 1,863,000千圓에 대한 成長率임.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9年~昭和11年版.

『朝鮮經濟年報』, 昭和16年~17年版 및 1948年版에서 作成.

아니라 民族收奪이라는 보다 本質的인 問題가 內包되어 있다는 것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20年代는 韓國工業이 日本의 初期的 資本主義經濟를 高度의 工業化段階로 끌어올리는데 貢獻한 時代라고 하면 1930年代는 成熟된 日本資本主義의 帝國主義的인 戰爭遂行을 위하여 犧牲된 時期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1920年代까지는 日本資本의 韓國工業에의 投資가 大部分 電力·食品·纖維· 고무·皮革·製紙·窯業등 非軍需輕工業部門에 行해짐으로써 韓國工業이 日本工業圈의 一環으로서 또는 過剩된 資本力의 排出口로서 커다란 役割을 擔當하였음에 대하여 1930年代에 들어서자 31년에는 滿洲事變, 32년에는 日軍의 上海攻擊, 37년에는 中日戰爭, 39년에는 太平洋戰爭이 勃發함으로써

韓國工業은 日本의 軍需物資를 生産하기 위하여 重化學工業中心의 軍需産業體制로 構造轉換되었다는 歷史的 過程으로서 充分히 立證될 수 있다.

또한, 가령 그와 같은 工業의 急速한 成長의 結果 이 期間에 工産品의 輸出이 增加하였지만(다음 第12表 參照) 그 輸出對象國이 日本이라기 보다는 새로이 日本의 支配下에 들어간 滿洲 및 中國北部方面이 있음을 생각하면 그러한 事情을 더욱 容易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⁵⁾ 要컨대 既述한 바와 같이 1920年代의 韓國工業의 急速한 成長이 過剩된 日本의 資本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로 非軍需輕工業部門의 急速한 成長에 基因한다면 1930年代의 工業成長은 軍需工業으로서의 重化學工業의 急速한 發達에 基因한다고 하겠다.

이리하여 1920年代와 30年代를 通하여 韓國工業이 急速한 成長을 하는 過程에서 工業 構造의 實質的 跋行性이나 韓國人의 勞動力收奪은 더욱 深化되어가는 서글픈 現象을 보였지만 全體經濟의 工業化는 刮目할 程度로 빨리 實現되었다. 지금 第12表에서 全産業에 대한 工業의 比重推移를 보면 1911년에는 겨우 10.8%에 不過하던 것이 1921년에는 15.4%, 30년에는 23.9%, 그리고 第2次大戰이 勃發하던 39년에는 38.0%로 繼續 上昇하였고, 이것이 1943년까지 큰 變動없이 持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特히 中日戰爭(1937年)과 2次大戰(1939年)의 戰時를 前後하여 韓國經濟는 初有로 많은 工業化가 達成되었던 것이다. 이 當時에 있어서 工業의 比重이 全産業의 37~38%를 占하고 있었다는 것은 1960年度에 있어서 美國·英國·伊太利, 日本등 主要先進國의 경우보다도 工業

<第12表> 解放前 工業의 比重推移 (經常價格)

年 度	全 産 業		工 業		B/A
	總生産額(A)	成 長 指 數	生産額(B)	成 長 指 數	
	千圓		千圓		%
1911	409,294	100.0	43,528	100.0	10.8
1921	1,302,484	318.4	200,535	454.5	15.4
1925	1,643,062	401.7	269,364	619.3	16.4
1930	1,176,086	287.5	280,963	640.9	23.9
1935	2,095,459	512.2	607,477	1,396.7	28.9
1937	2,937,766	718.4	959,308	2,179.9	32.7
1939	3,902,077	954.0	1,498,277	3,404.5	38.0
1943	5,526,164	1,351.1	2,050,000	4,659.1	37.0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大正10年~昭和11年版 및 『朝鮮經濟年報』1948年版에서 作成.

(5) 韓國의 輸出對象國別 貿易構成을 보면 1931년에는 日本에 대한 輸出이 46.7%에서 1936년에는 38.1%, 1937년에는 36.9%로 減少하였으나 日本以外の 第3國에 대한 輸出은 1931년에 2.3%에서 1936년에는 5.5%로 그리고 1937년에는 7.3%로 각각 增加하였던 것이다.

의 比重이 더욱 컸던 것이다.⁽⁶⁾ 勿論 이 當時에 있어서 韓國의 工業이 軍需工業中心의 畸型的인 構造를 지니고 있었고, 또한 1次産業의 比重이 아직 대단히 무거운 동시에 3次産業의 發達이 隨伴되지 못하였으므로 全體의인 産業構造가 高度화된 先進國의 경우와 그대로 比較할 수는 없다. 오히려 解放前의 韓國工業은 一部の 軍需工業만이 두드러지게 發達한 非正常的인 肥大症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業種別·部門別 工業成長의 檢討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의 工業이 日帝의 軍需工業中心으로 急速한 成長을 하여 오다가 1945年 2次大戰의 終了로 우리나라는 解放을 맞았다. 日帝가 물려준 畸型的 工業構造와 戰時景氣의 消滅로 解放直後에 있어서 工業成長은 오히려 衰退一路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國土의 兩斷으로 北韓의 近代의 工業圈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農業이 爲主였던 南韓은 均衡있는 産業構造와 自主의인 工業體制를 이룩하는데 있어 거의 絕望的 狀態로 轉落하고 말았다. 그후 곧 이어 1950년에 들어서자 6·25 動亂의 勃發을 보았고 滿3年동안 繼續된 이 戰亂으로 말미암아 그나마도 微弱하였던 南韓의 工業施設의 42%가 破壞됨으로써 韓國의 工業은 실로 慘憺한 狀態에까지 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不幸히도 解放以後 6·25의 動亂期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工業의 實質成長趨勢가 어떠한가를 表示하는 具體的인 統計資料의 缺如로 因하여 그에 대한 巨視的 分析이 困難하므로 不得已 微視的 分析에 그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別途로 後述하기로 하고 以下에서는 1953年~64年의 지난 11年間으로 分析의 範圍를 局限시키고자 한다. 이리하여 이제 6·25 動亂以後의 우리나라 工業成長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1953年 7月の 休戰以後 本格的으로 시작된 外國援助와 이를 뒷받침으로한 國家의 積極的인 産業復舊政策으로 因하여 比較的 빠른 速度로 工業을 中心으로한 經濟成長이 이루어졌지만 戰後에 隨伴되었던 累進的 惡性「인플레이션」, 外援의 削減과 外換事情의 惡化, 두차례의 革命을 비롯한 社會的 政治的 混亂등 갖가지의 內的 外的 諸要因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工業의 成長趨勢는 결코 順坦하지를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1953~64年의 지난 11年間에 있어서 우리나라 工業의 附加價値의 增加推移를 總括적으로 表示하면 다음 第13表와 같다. 그리고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算出된 工業全體의 成長率과 部門別 成長推移를 表示하고 있는 것이 第14表이다.

(6) 前記 第8表 參照.

〈第 13 表〉 製造業部門 附加價值 總括表(1960年 不變市場價格) 單位：百萬圓

分類 番號	業 種	年度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20	食料品製造業	1,934	2,488	3,003	3,860	4,144	4,741	4,713	4,785	5,159	5,206	6,358	5,438
21	飲料品製造業	1,066	873	1,702	2,042	1,832	2,102	2,495	2,685	2,831	2,294	2,261	2,258
22	煙草製造業	2,616	2,804	3,025	3,068	3,146	3,356	3,489	3,444	3,710	4,125	4,629	5,192
23	纖維工業	2,423	3,045	3,860	4,612	5,720	5,806	6,169	6,013	5,567	6,341	6,768	7,736
24	靴類 衣類 및 裝身品製造業	364	429	643	552	645	722	792	861	780	958	974	1,059
25	製材業 및 木 製品製造業	319	410	443	497	657	504	521	693	389	541	642	630
26	家具 및 裝 品製造業	144	176	256	254	253	236	200	200	140	143	178	155
27	紙類 및 紙類 製品製造業	161	207	214	236	283	277	368	486	594	708	940	1,044
28	印刷, 出版 및 同類似業	464	528	644	665	607	821	850	1,091	967	1,191	1,268	1,456
29	皮革 및 皮革 製品製造業	213	269	336	441	441	496	396	356	413	425	398	359
30	고 孚 製 品業	304	423	354	330	468	520	798	796	767	891	1,025	1,189
31	化學 및 化學 製品製造業	634	738	890	845	897	994	1,081	1,490	1,670	2,198	2,722	2,949
32	石油 및 石炭 製品製造業	101	116	140	232	267	316	417	539	593	695	729	1,095
33	土 및 유 리 製品製造業	343	492	617	767	777	1,068	1,268	1,327	1,360	1,724	1,900	2,669
34	第 1 次 金 屬製造業	137	158	186	289	376	429	611	757	639	844	1,248	1,179
35	金 屬 製 品 製造業	264	280	307	306	368	418	467	486	546	646	848	602
36	機械製造業	341	435	392	532	434	432	401	335	462	608	623	617
37	電氣機械器具 製造業	57	68	65	134	139	142	150	211	344	500	617	689
38	輸送用機械器 具製造業	418	547	695	803	868	811	791	878	1,083	1,176	1,961	1,871
39	其他製造業	262	310	327	364	385	340	394	379	380	516	684	521
	合 計	12,565	14,796	18,099	20,829	22,707	24,531	26,371	27,812	28,394	31,820	36,773	38,708

註：1964年은 暫定推計임.
資料：韓國銀行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3~64年間に 있어서 우리나라 工業의 年平均成長率은 10.9%였고 그 附加價值가 1953年의 12,565百萬圓에서 1964年의 38,708百萬圓으로 增加하여 그동안 工業은 約 3倍의 成長은 實現한 셈이다. 이 期間에 있어서 工業의 年平均成長率 10.9%는 相當히 높은 水準인 것으로서 앞에서 본 것 처럼 工業成長이 빨랐다고 보는 1920年代의 年平均成長率 10.4%를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工業의 成長速度

< 第 14 表 >

工業部門別 成長推移

單位 { 附加價值 : 百萬圓
成長率 : %
指數 : 1953=100

年 度	全 工 業			消 費 財 工 業			生 產 財 工 業			其 他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1953	12,565	—	100.0	10,008	—	100.0	2,295	—	100.0	262	—	100.0
1954	14,796	17.7	117.7	11,652	16.4	116.4	2,283	23.5	123.5	310	18.4	118.4
1955	18,099	22.3	144.0	14,480	24.3	144.7	3,292	16.2	143.4	327	5.5	124.8
1956	20,829	15.0	165.7	16,557	14.3	165.4	3,908	18.7	170.3	364	11.3	138.9
1957	22,707	9.0	180.7	18,196	9.9	181.9	4,126	5.6	179.9	385	5.9	146.9
1958	24,531	8.0	195.1	19,581	7.6	195.7	4,610	11.7	200.9	340	-11.1	129.8
1959	26,371	7.5	209.8	20,791	6.2	207.8	5,186	12.5	225.9	394	15.9	150.4
1960	27,812	5.5	221.2	21,410	2.9	214.0	6,023	16.1	262.0	379	-3.9	144.7
1961	28,394	2.1	225.9	21,317	-0.4	213.1	6,697	11.2	291.8	380	0.3	145.0
1962	31,820	12.1	253.1	22,823	7.1	228.2	8,481	26.7	369.6	516	35.9	196.9
1963	36,773	15.5	292.5	25,441	11.5	254.3	10,648	25.6	463.9	684	32.5	261.9
1964	38,708	5.3	307.9	26,516	4.2	265.1	11,671	9.6	508.1	521	-23.8	198.0
平 均		10.9			9.5			16.1			7.9	

註 : 消費財工業은 前記 第 13 表의 20~30, 生産財工業은 31~38 까지임.
資料 : 第 13 表에서 作成

가 빨랐다는 것은 休戰直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經濟의 正常的인 發達過程에서 齎來되는 現象이라기 보다는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와 같이 戰災國의 戰後復舊過程에서 흔히 工業成長이 빠른 現象을 보여준 것과 同質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工業成長이 빨랐다는 것은 오늘날 大部分의 後進國의 경우와 같이 그 工業化過程의 初期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急速한 工業成長을 나타내는 現象의 一環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點에 관해서는 美國 「하버드」大學의 「거셴크론」(A. Gerschenkron)教授가 後進國의 工業化에 관한 所論에서 後進國은 이미 先進國이 實現해 놓은 工業化를 위한 여러가지 惠澤(技術, 資本等)을 언제라도 利用할수 있는 立場에 있기 때문에 先進國의 경우보다 工業化가 빠르다고 指摘한 바와 같다.⁽⁷⁾

우리나라의 경우는 概論하여 美國의 無償援助의 4分の 1程度가 國內資本形成에 寄與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技術援助計劃은 그 內容이 批判될 點이 많으나 여하간 지금 까지 每年 繼續되고 있고 西獨·日本等과의 民間의 技術提携도 一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美國을 비롯한 各國으로 부터 借款導入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繼續될 것이다. 이와같은 資本 및 技術導入은 실제로 工業部門을 위시한 近代의 產業에 投入되었다

(7) A. Gerschenkron, "Social Attitude,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Vol. VI, No.1

고 하겠으므로 그만큼 工業成長이 빨랐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工業成長이 比較的 빨리 進行된 反面에는 그만큼 韓國經濟의 對外依存性, 특히 工業의 對外依存度를 더욱 深化시켰다는 事實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될 줄로 안다. 사실 原料의 導入額이 增加하는 傾向이 있을 뿐더러 最近 數年間에 있어서는 原料導入의 名目으로 實質적으로 半製品, 혹은 거의 完製品에 가까운 物資를 들여다가 약간의 加工·着色을 하거나, 심지어 包裝變造를 하는 程度로서 國內市場에 내놓는 例가 없지 않다. 이와같은 現象에 대해서는 깊은 檢討와 反省이 加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量的인 工業成長率은 상당히 빠르기는 하였지만 그 實質적인 成長過程을 보면 年度에 따라서 起伏이 심하다는 것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成長趨勢는 결코 安定된 上昇傾向을 보이고 있지 못하였다. 즉 工業成長率이 休戰直後の 3年間은 比較的 높은 水準을 維持해왔으나 1955年의 22.3%를 頂點으로 하여 그후 繼續 鈍化를 보였고 兩次的 革命으로 여러가지 混亂이 繼續되던 1961년에는 最低水準(2.1%)에까지 下落하였다. 이것이 다시 第1次 5個年經濟計劃의 始作과 함께 上昇한 것으로서 지난 11年間에 우리나라의 工業은 最高 22.3%에서 最低 2.1%에 이르는 成長의 波動을 그려온 셈이다.

工業成長이 이처럼 甚한 屈曲을 그리게 된 理由는 全般的인 어려운 韓國經濟의 內的 外的 要因以外에 우리나라 工業構造의 脆弱性, 말하자면 工業이 消費財工業 中心이란 點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6·25 動亂直後 不足된 生活消費用品의 供給을 위하여 纖維工業과 食品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消費財工業이 雨後竹筍格으로 急速히 成長하기 시작하였지만 그후 生活의 安定 및 經濟秩序의 回復과 더불어 이들 消費用品에 대한 需要의 誘發要因이 漸減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消費財工業은 그 原料와 生産手段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에 物價, 外換事情, 貿易政策 등에 의하여 그때 그때마다 甚한 影響을 받았으며 그 自體가 國內적으로 安定的 成長을 위한 基礎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工業의 大宗을 이루어온 消費財工業은 從前의 높은 成長率과는 反對로 成長의 停滯를 보이게 되었고 그 結果 工業全體의 成長도 以前의 높은 水準으로부터 점점 鈍化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위의 第14 表를 보면 消費財工業은 休戰以後 繼續 그 成長率이 減少하여 5個年經濟計劃의 空白年度인 1961년에는 -0.4%에 까지 低落하였던 것인데 消費財工業의 이와같은 成長鈍化와는 反對로 生産財工業은 全般的으로 높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어 年平均 16.1%에 까지 達하였으며 그 結果 1953년에 있어서 보다 1964년에 와서는 5倍以上의 成

長을 實現함으로써 消費財工業의 約 2 倍의 成長實績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生産財工業의 이와같은 急速한 成長에도 不拘하고 全體工業의 成長率趨勢가 主로 消費財工業의 그것과 比例하는 步調를 취하고 있는 理由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生産財工業의 그것보다도 壓倒的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工業全體의 成長率도 消費財工業의 그것에 의하여 주로 左右되었다. 말하자면 消費財工業의 成長의 鈍化와 함께 工業全體의 成長도 鈍化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런데 1953 年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 다음 第 15 表에서와 같이 消費財工業은 1961 年에 가서는 2 倍以上으로, 64 年에는 2.7 倍로 成長한 데 대하여 生産財工業은 1961 年에 約 3 倍, 64 年에는 5 倍以上으로 各各 成長하였으므로 5 個年計劃實施 以後 3 年間에 生産財工業의 成長이 消費財工業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더욱 急速하였다고 볼 수 있다.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自體가 基本的으로는 產業體制의 再整備와 工業構造의 改編을 그 目標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當然한 歸結이라 하겠다. 다시 業種別로 보면 1953 年을 基準으로 할 때 1964 年 現在 消費財工業部門에서 3 倍以上의 成長을 實現한 것으로서는 纖維工業, 紙類 및 紙製品工業 印刷 및 出版業 고무工業 등인데 그 중에서도 紙類 및 紙製品工業의 成長指數가 648.4%로 가장 높은 成長을 하였고 反對로 成長이 가장 不振한 것은 成長指數 107.6 인 家具 및 裝置品製造業이다. 한편 生産財工業은 同期間에 있어서 金屬製品과 機械工業을 除外한 모든 業種이 3 倍以上의 成長을 實現하였고 그 중에는 石油 및 石炭製造業과 電氣機器製造業과 같이 10 倍 以上の 높은 成長實績을 보인 것도 있다. 그러나 重要的金屬製品業과 機械工業 등의 成長이 比較的 不振함은 注目할만 하다.

以上 본 바와 같이 1953~64 年間을 볼 때 消費財工業은 이 期間의 初期에 있어서 急速한 成長을 實現하였고 後半期에 들어서면서 부터 成長率의 低調를 보였는데 대하여 生産財工業은 前者와는 對蹠的으로 이 期間의 初期에는 成長이 不振하였지만 後半期, 특히 5 個年計劃의 實施와 함께 刮目할 程度의 急速한 成長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앞에서 累次 指摘한 바 있듯이 工產品에 대한 需要의 誘發要因의 變化와 產業構造의 基盤強化, 그리고 輸入代替效果 등을 높이기 위한 政策의 結果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生産財工業의 현저한 發達로 因하여 工業構造는 徐徐히나마 消費財工業中心으로 부터 生産財工業中心으로 變移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原料調達面이나 其他面에 있어서 海外依存度를 높이는 結果를 가져와서는 아니될 뿐더러 나아가서 國內原料의 活用이나 內資動員 等に 보다 用力하여야 한다는 課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第 15 表>

業種別 工業成長과 指數

單位：百萬원

業 種 別	1953	1961		1964	
			成長指數		成長指數
消 費 財 工 業	10,008	21,317	212.9	26,516	265.2
食 料 品	1,934	5,159	266.7	5,438	284.2
飲 料 品	1,066	2,831	265.6	2,258	209.1
煙 草	2,616	3,710	141.8	5,192	198.9
織 維	2,423	5,567	229.7	7,736	319.8
靴·衣類 및 裝身品	364	780	214.3	1,059	291.5
製材 및 木製品	319	389	121.9	630	197.5
家具 및 裝置品	144	140	97.2	155	107.6
紙類 및 同製品	161	594	368.9	1,044	648.4
印 刷 및 出 版	464	967	208.4	1,456	313.8
皮 革 및 同製品	213	413	193.9	359	168.5
고 무 製 品	304	767	252.3	1,189	391.1
生 產 財 工 業	2,295	6,697	293.1	11,671	508.5
化 學	634	1,670	263.4	2,949	465.1
石油 및 石炭製品	101	593	587.1	1,095	1,084.1
土 石 및 유 리	343	1,360	399.4	2,669	778.1
第 一 次 金 屬	137	639	466.4	1,179	860.6
金 屬 製 品	264	546	206.8	602	228.0
機 械	341	462	135.5	617	180.9
電 氣 機 器	57	344	603.5	689	1,208.8
輸 送 用 機 器	418	1,083	259.1	1,871	447.6
其 他 製 造 業	262	380	145.0	521	198.8
計	12,565	28,394	225.9	38,708	307.9

資料：第 13 表 및 14 表에서 作成

3. 1910 年代 以後의 工業成長率 比較

이제 1911 年부터 1964 年(參考로 第 1 次 5 個年經濟計劃의 目標年度인 1966 年을 包含) 까지의 長期間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工業成長推移를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勿論 이와 같은 比較는 價格基準이 同一하지 않고 解放前은 北韓이 包含되어 있으며 또한 韓國經濟의 內外與件과 發展段階가 相異하므로 그대로 一律的으로 較量 論議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意義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近來에 이르러 韓國工業의 成長率이 현저하게 上昇하였다. 그러나 지금 工業構成比와 아울러 計數上으로 考察할 때 대체로 日帝下의 水準을 凌駕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다. 이 점을 아래에서 좀 더 具體的으로 比較하여 보자.

1953年~64年間に 있어서 韓國經濟全體의 年平均成長率이 5.0%였음에 대하여 同期間에 있어서 工業의 年平均成長率은 10.9%에 達함으로써 全體經濟의 成長速度보다도 2倍나 빨랐다. 그리하여 GNP 속에서 차지하는 工業附加價値의 構成比도 다음의 第16表에서와 같이 그동안 約 2倍에 가까운 增大를 보았다. 즉 1963년에는 工業의 比重이 8.0%였으나 1964년에 와서는 14.3%로上昇함으로써 經濟全體의 工業化가 크게 進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第1次 5個年計劃의 目標年度인 1966년에 이르러 工業의 全産業中 構成比는 16.3%로 策定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繼續하여 더한층의 工業發展을 가져올 것이 期待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韓國工業의 發展相은 前述한 바와 같이 全産業中 工業이 30~40%를 차지하고 있는 先進國의 경우와 比較하면 아직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64년에 있어서 工業의 比重이 14.3%에 지나지 않으므로 計數上으로는 韓國經濟의 工業化程度가 日帝의 支配下에 놓여 있던 1920年 前後의 그것과 恰似한 水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런데 그와같은 計數比較에 있어서 留意하여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解放前計數에는 北韓이 包含되었다는 點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 重要한 것은 解放後 오늘날의 工業發展이 우리의 「自主的」發展인데 대하여 日帝下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日本資本이 超過利潤의 取得을 꾀하고, 또한 侵略戰爭遂行을 위하여 畸型的인 國內 工業發展을 招來한 「收奪的」發展이었다는 點에서 그 本質과 發展內容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다음 第16表 및 17表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第16表>

工業의 比重推移
(附加價値構成比)

單位 : %

年 度	GNP	工 業	年 度	GNP	工 業
1953	100.0	8.0	1960	100.0	12.7
1954	100.0	8.8	1961	100.0	12.4
1955	100.0	10.2	1962	100.0	13.4
1956	100.0	11.5	1963	100.0	14.5
1957	100.0	11.7	1964	100.0	14.3
1958	100.0	11.9	1966 ⁽¹⁾	100.0	16.3
1959	100.0	12.3			

註 : (1) 第1次 5個年計劃目標年度의 計劃值임.
資料 : 前記 第7表

(8) 前記 第12表 參照

<第 17 表> 韓國工業의 成長率 및 構成比推移(1911—66年)

單位：%

成長率 및 構成比	年 度													
	1911	1921	1925	1930	1935	1937	1939	1943	1950	1953	1955	1960	1964	1966
工業 成長 率	—	30.1'	1.9	-1.1	24.7	21.9	13.4'	10.0	-37.8	47.4	22.3'	5.5	5.3'	11.3
全産業生産額에 대한 工業生産額 의 構成比	10.8	15.4'	16.4	23.9	28.9	32.7	38.0	37.0	5.9	8.0	10.2	12.7	14.3'	16.3

註：(1) 1911~43年間の 工業生産額의 構成比는 經常價格, 1950~53年(1955年 不變價格)과 1955~64年(1960年 不變價格)은 附加價値의 不變價格에 依함.

(2) 工業成長率은 1921~39年은 1920年 不變價格, 43年은 經常價格, 50~53年은 1955年 不變價格, 55~64年은 1960年 不變價格을 各各 基準으로 算出되였음.

(3) 1966年은 5個年計劃의 目標年度計劃値

(4) 1943年까지는 南·北韓을 합친 計劃임.

資料：第 6 表, 11 表, 12 表 및 16 表外 『韓銀調查月報』 4294 年 12 月號 및 1964 年 12 月號~65 年 1 月號,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補完)計劃』(1964 年 2 月, 經濟企劃院刊) 등에서 作成.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教授〕

<Summary>

An Analysis on the Growth Rat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yung-June Whang**

I. The Growth and Structure of Korean Economy

This thesis aims to analyse the growth rat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necessary, however, that we look into the growth rate and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of this country before we examine the essential points.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i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sections:

1. Trend of Economic Growth Rate

The rate and trend of Korean economic growth in the past 16 years (1948-64) were analysed here. As you see in Table 1 Korean economy was doubled in scale during this period, and its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per year showed 5.5%. In details, an average growth rate of secondary industry was increased by 14.9% per year. This growth rate of 14.9%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any other industries. On the contrary, primary industry showed the lowest average growth rate of 3.3% per year (see Table 1).

Actually, during the past 20 years of 1945-64, we had had a series of social and political insecurities including the Korean War which lasted three years, and the two political revolutions. As a result, it can be easily understood that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in this period could not show a favorable upward trend, and its fluctuations were pretty remarkable.

* The author is professor of industrial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Change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During the same period, the different growth rate by industry has brought about a considerable change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able 5 we can see that the proportions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o GNP consisted of 46.3%, 8.6% and 45.1% in 1948 but those are changed into 31.4%, 22.4%, and 46.2% in 1964. So to speak, as the result of rapid growth in the secondary industry including mining, manufacturing and electric power, the notabl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realized. This means in brief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economy.

Now, focusing our attentions on manufacturing industry, we can point out in Table 6 that its average growth rate per year during 1953-64 amounted to 10.9% twice as high as that of the whole economy. Consequently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o GNP was increased from 8.0% in 1953 to 14.3% in 1964 (see Table 7 and 16), and so we dare to say that Korean economy has been strikingly industrialized during the past 10 years.

3. Direction and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 spite of such an outstanding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still the proportion of primary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to GNP occupies 31.4% in 1964 while that of tertiary industry indicates 46.2% in the same year. This means that the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has not yet emerged out of its traditional backwardness and deformity. Under such a present condition it would be unreasonable and more almost impossible to convert at one time the present industrial structure into a developed country's model which shows the order of the weight to GNP to be tertiary industry, secondary industry and then primary industry. Therefore, I would like to say the reasonability should be insisted that for the time being the readjust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will be made on the basis of such an order as the proportion of primary industry to GNP is highest and that of a secondary industry lowest.

II An Analysis on the Growth Rate and its Trend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is part is the core of this analysis. I carried out an analysis on the growth rate before 1945, and the trend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for the period from the liberation of 1945 to 1964, and also for the long period under the Japanese rule before. It is because that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of nowadays is closely related to the structural deformity inherited by Japanese imperialistic rule over this country.

Hence, the growth rate and its trend of manufacturing industry were figured out and examined as follows: (1) for the period about 20 years before the liberation of 1945, (2) for the period since the liberation, particularly from the truce of Korean War in 1953 to 1964, and (3) for the near a half of a century throughout the above two periods.

The analysis on the above three stages is chiefly based on a series of tables as shown in the body of this thesis. And also, at the end of this part, some notes on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economy, which has been brought about as the result of rapid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y, were added. Lastly we observed that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e truce of Korean War in 1953 to 1964 was far lower than that of the industry in 1930s when Korea had been ruled by Japan and was as similarly high as in 1920s and that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o GNP which shows the industrialization of national economy almost corresponds to that in 1920s.